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식생활 행동*

Adolescents' Self-Esteem and Materialism as related to Clothing and Food Behavior*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 전공
교수 박성연
식품영양학 전공
교수 이종미
의류직물학 전공
교수 임숙자

College of Home Science &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Prof. : Park, Seong-Yeon

Dept. of Food & Nutrition

Prof. : Lee, Jong-Mee

Dept. of Clothing & Textile

Prof. : Lim, Sook-Ja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고찰 | V. 요약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 folds; One is to explore the adolescents' self-esteem, materialism, clothing and food behavior according to their gender and socio-economic status(SES). The oth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 among those variables. The subjects were 530 high school students(246 boys; 284

*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인간생활환경 연구소에서 지원한 1999년도 학술연구비에 의해서 수행되었습.

girls)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As results, boys and adolescents from higher SES show higher self-esteem compared to girls and those from low SES.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materialism, but adolescents from lower SES have higher materialism. Girls buy clothes and eat out more frequently and spend more money on them. As anticipated,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esteem and materialism. Moreover, adolescents who have higher self-esteem and lower materialism tend to behave more desirable patterns of clothing and food behavior.

주제어(Key Words): 물질주의(materialism), 자아존중감(self-esteem), 의생활행동(clothing behavior), 식생활행동(food behavior)

I. 서론

인간이 살아가는데 대한 전반적인 의식구조인 가치관은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이나 개인, 사회 및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여러 가치관 중에서도 특히 물질주의 가치관은 이기주의 성향이나 비인간화 및 과소비를 낳게되기 때문에 (전국연, 1998) 현실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성장위주의 급격한 사회 발전과 이에 따른 서구 문화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물질주의 가치관이 팽배하고 있다. 물질주의 가치관은 '소비에 애착을 갖고 소비를 통해서, 또는 물질의 소유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라고 정의된다(Belk, 1985; Richins & Dawson, 1992). 따라서,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재화의 소유나 소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려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지나친 소비를 하고 과소비 성향이나 과소비, 사치와 같은 비효율적인 소비행동을 증대시킨다(김미선, 1996; 백경미, 1994; 송은경, 1997).

특히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청소년의 집단화 특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 즉, 청소년은 또래와의 동조성이 강하고 발달적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질주의 가치관의 영향을 쉽게 받고 이로 인해 갖가지 과소비 행태, 다양한 비행 및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물질주의 가치관과 소비성향간의 직접적인 관계로 인해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그들의 의복행동이나

식습관 행동에 반영되기도 한다.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소비행태가 눈에 띄게 증가해 소비시장의 주목할만한 주체가 될 만큼 많은 부분을 청소년이 점유하고 있으며,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갖가지 비행을 저지르는 사례는 그 예가 될 수 있다.

한편, 소비성향이나 물질주의 가치관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사회문화 현상으로, 청소년이 속한 가정이나 또래, 및 사회환경으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의해 형성된다. 가장 일차적인 환경인 가정은 부모의 물질주의 가치관이나 소비행동을 통해 청소년의 물질주의나 소비 행동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부모와의 관계나 양육행동 등 가정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즉, 자신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나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지고 이러한 자신감의 결여는 재화나 소유물을 통해 대리 만족하려는 성향을 가져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물질주의 성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Richins & Dawson, 1992).

가정환경적 요인 외에도, 청소년시기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이므로, 의복에 대한 의존성이나 또래와의 집단행동 및 유행에 대한 동조성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또래집단과의 동조성 및 또래의 영향과 외모에 대한 중요성, 자신에 대한 불만족 등은 청소년의 식 행동에도 반영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청소년들 사이에 흔히 하는 다이어트를 위한 식 행동, 패스트

푸드 이용빈도의 증가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의생활, 식생활 행동은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는 자아존중감이나 물질주의 성향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

종합하면, 물질의 소유와 소비에 대한 욕망은 개인의 불만족감과 불안전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Belk, 1988; Richins & Dawson, 1992),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김유연, 2000; Richins & Dawson, 1992), 나아가 청소년의 일상적인 의, 식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한편, 한번 형성된 가치관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자아개념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은 물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정신적인 퇴폐풍조 내지는 한 사회인으로 생활하는데 있어 역기능적일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와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올바른 식습관은 신체의 건강을 유지시키며 정신적,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성호, 1998).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을 의생활 및 식생활 행동과 관련지어 연구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및 발달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필요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 및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물질주의 가치관 및 의생활·식생활 행동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복행동 및 식생활 행동간의 관계를 밝히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종합학문, 실용학문으로서의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살려 인간 행동의 심리적 기원과 의생활 및 식생활 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성별 및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물질주의 가치관 및 의생활, 식생활 행동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 물질주의 가치관 및 의생

활과 식생활 행동은 부모의 양육행동, 가정의 심리적 환경, 기타 사회 인구학적 변인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 인구학적인 변인 중 청소년의 성별 및 가정의 경제수준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순구, 박정순, 1990)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구정화, 1994; 정재은, 이순원, 1993; 심정은, 1997; 양원경, 1999; Cash, Winstead & Janda, 1986)에서 일관적으로 성별간 차이가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월 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고교생의 자아개념이 높았다는 연구(서주형, 1995; 손원숙, 1994)들이 자아존중감과 경제수준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물질주의 가치관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는데, 물질주의 가치관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송은경, 1997; 서정희, 조영희, 1997)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소득 수준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는 비일관적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높다(백경미, 1994; 송인숙, 1993)는 보고가 있는가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김미선, 1996; 김민희, 1998)도 있다. 또한 가족의 자원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낮았다는 Rindfleisch, Burroughs 와 Denton(1997)의 연구결과는 경제수준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부적의 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의생활 행동의 경우, 전반적인 의복행동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은 다수지만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연구(김민희, 1998; 김은정, 1998; 박혜선, 1990; 백민숙, 1986; 임숙자, 1988)가 대부분이므로 성별간 차이를 밝힌 연구를 찾기 힘들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 여학생과 남학생간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즉, 서주형(1995)은 고등학교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의복구매태도가 더 적극적이고 정보원 활용을 더 많이 하며, 다양한 선택요인을 고려한다고 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수정(1994)의 연구에서도 여자 대학생의 의복구매태도가 남학생보다 더 적

극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다양한 연령층 소비자의 의복 구매 및 소비행동을 연구한 이민경(1997)은 소득과 의복 구매행동간에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반면, 서주형(1995)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의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보원 활용과 구매에 적극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여 비 일관적이다.

한편, 성별이나 계층에 따른 식생활 행동에 관한 연구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영미(1990)는 식습관 형성 요인으로서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별, 연령, 가정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문화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패스트푸드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서영선, 1992)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패스트푸드 이용빈도가 높았고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들의 패스트푸드점 이용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성별 및 경제수준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는 비교적 일관적이나, 경제수준과 물질주의 가치관 및 의, 식생활 행동간의 관계는 연구대상자 연령 또는 조사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과소비나 물질주의 가치관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면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청소년들의 행동은 신체적, 성격적 특성의 개인차 뿐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나 훈육 또는 양육행동에 의해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초기 아동기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발달적 변화와 적응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행복감 및 인생 만족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의 기초가 형성되며(양원경, 1999; 이미정, 1987), 살아가는데 대한 전반적인 의식구조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자아존중감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유연, 2000). 이러한 결과는 물질의 소유와 소비에

대한 욕망은 개인의 불만족감과 불안전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아의 상실감과 부족을 느끼는 사람은 이를 보충하고 채우기 위해 물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Belk, 1988; Richins et al, 1992)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으로 가는 인간발달의 과도기로서 다양한 사회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여러 면에서 평가하고,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박영남, 1993). 결국,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가치관 발달과 행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치관은 개인의 사고 방식이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및 가치관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들의 의생활 행동이나 식생활 행동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자아존중감이나 물질주의 가치관 각각을 주제로 하여, 인구학적인 변인이나 양육행동과의 관계, 또는 비행행동, 의생활 행동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을 뿐,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3.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 행동간의 관계

현대사회에서는 매스미디어의 확산이나 준거집단을 통한 사회적 비교 때문에 청소년들이 외모를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Rudd & Lennon, 1994). 자의식의 발달과 신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의 증가 및 사회적 비교는 나아가 의복에 대한 관심과 행동 등을 증가시켜 의복을 자신에 대한 상징과 평가의 요소로 지각하게 될 뿐 만 아니라 의복착용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거나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 이렇게 외양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려는 청소년들의 생각은 점차 의복에 대한 관심과 소비행동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물질주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의생활 행동을 연구한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몇 편 있을 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의생활 행동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

의복 착용행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고생의 경우 의복 착용동기로 심미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동조성이나 심리적 의존성 등은 낮은 것으로 보고한다(김순구, 윤학자, 1986; 김순구, 박정순, 1990; 김연주, 1992; 홍찬희, 198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의복구매 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바(서주형, 1995)에 의하면, 청소년은 사회적,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정보 활용을 하는 등의 적극적 구매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정은(1997)은 중고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의복의 과시성이 높았고 유행의복 선택 행동은 낮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의 확산과 준거집단을 통한 사회적 비교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갖는 신체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Rudd & Lennon, 1994)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의생활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가치관과 의생활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옥희(1997)는 성인을 대상으로 물질주의 가치관과 준거집단 및 사회계층이 의복의 상징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의복의 상징적 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민희(1998)는 다양한 연령층의 중산층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물질주의 성향과 의복구매행태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판단보다는 타인의 인정을 지향할 수 있는 정보원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의복 구매빈도가 많으며 구매 가격대도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은 그들의 의복 착용행동이나 의복구매행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4.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식생활 행동간의 관계

식생활 분야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연령로 식습관 조사를 하거나 식습관 형성 및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조사한 것들이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식습관 및 식생활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식습관에 대한 연구에서 이성호(1998)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고생은 낮은 학생들보다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섭식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상선(1993)은 폭식집단과 정상집단을 비교한 결과 폭식을 하는 여대생은 자아존중감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섭식행동간의 관련성은 국외 연구에서도 나타나, 여대생의 섭식행동이 불규칙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Petrie, 1993), 식사섭취가 불량한 청소년기 여학생은 양호한 학생에 비해 신체에 대한 인식도와 자신감이 낮았다(Macdonald, 1983).

한편,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식생활 행동에 관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식품선택이나 식생활 행동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과 규칙성을 가지며, 이러한 식습관은 한 사람의 사고 및 행동양식과도 관계가 있다(이영미, 1990)는 점을 고려 할 때, 개인의 행동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가치관과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나 자아개념, 물질주의 소비성향은 청소년의 식생활 행동과도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물질주의 가치관이란 소비자가 소유자체에 애착을 갖고 자유재량으로 소비를 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것(Belk, 1985)이라고 볼 때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소비와 관련된 식생활 행동을 많이 할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 행동, 식생활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성별 및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물질주의 가치관 및 의생활 행동, 식생활 행동의

- 실태는 어떠한가?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은 의생활·식생활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강남과 강북 지역에 위치한 남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총 530명(남: 246명, 여: 284명)이며 평균 연령은 16.3세 이었다. 경제수준은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으로 평가하였으며, 분석을 위해서는 중상과 상을 상으로, 중하와 하를 하로 합쳐 세 가지 수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 대상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상 이상의 가정이 18.9%이었고 중이 62.5%, 중하이하의 가정이 14.7%였다.

2. 측정도구

1) 물질주의 가치관 척도

청소년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해서 Richins와 Dawson(1992)이 개발한 물질주의 가치관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물질이 성공의 지표라는 생각인 성공(6문항), 물질과 획득의 중요성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인 전반적인 물질주의 가치관(7문항), 물질이 행복을 위한 필수라는 생각인 행복(5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oblimin 회전방식을 이용한 요인분석결과 기존 연구(Richins & Dawson, 1992)에서의 요인들과 같이 3개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세 개의 하위요인들간의 상관이 매우 높았기 때문(.66이상)에 연구문제 분석에는 세 개 하위요인들을 합한 전체 물질주의 가치관 점수를 사용하였다. 물질주의 가치관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2) 자아존중감 척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Harter(1985)의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운동능력, 학업능력, 사회적 수용도, 신체용모, 전반적 자아가치감, 행동품행의 6개 하위 요인,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 자아가치감 요인이 제외되고 다섯 개의 요인(신체용모, 사회수용, 운동, 행동품행, 학업)이 추출되었으며, 33개 문항 중 7 개의 문항이 제외되어 총 26문항이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가지 특이했던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 전반적 자아가치감 문항으로 분류되었던 5번('나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들 때가 자주 있다. '), 16번('나는 한사람의 인간으로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22번('내가 다른 사람이기를 바랄 때가 자주 있다. ')의 경우 본 요인분석 결과 신체용모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를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자아존중감 하위요인들의 신뢰도의 범위는 Cronbach's α 값이 .65 ~ .88 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5개의 하위요인 외에 이들 하위요인들의 총점인 전체 자아존중감도 사용하였다.

물질주의 가치관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에 대한 반응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주의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3) 청소년의 의생활 행동 조사를 위한 내용

청소년의 의생활 행동에 관한 내용으로는 의복구매 지출액, 구매빈도, 구매장소 등과 의복착용행동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의복착용행동 척도는 총 64문항으로 임경복, 임숙자, 조진숙(199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심미성(의복 착용시 아름답

다움을 고려하는 태도), 정숙성(단정한 옷차림을 중요시하는 태도), 심리적 의존성(옷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고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성향), 과시성(옷을 통해 타인의 주의를 끌고 과시하려는 태도), 동조성(또래들의 옷을 따라하려는 태도), 의복 관심도(옷에 대해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태도)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분석에서 신뢰도를 낮추는 한 개의 문항(21번)이 제외되어 63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척도에 대한 응답범위는 1점에서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행동 경향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범위는 Cronbach's α 값 .66~.87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한편, 의복구매 지출액, 구매빈도, 구매장소에 관한 문항(상세한 범주 내용은 표 3참조)은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4) 청소년의 식생활 행동 조사를 위한 내용

청소년의 식생활 행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식사에 대한 가치관(3문항), 간식 및 식사비용(2), 아침 식사 빈도, 외식 및 패스트푸드 이용빈도(3문항) 등을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식사에 관한 가치관으로는 식사를 하는 이유, 식사량, 음식 선택시 가장 중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3. 자료수집절차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2000년 2월에 서울의 강남과 강북 지역에 위치한 4개 남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각반의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총 600부 중 563부만이 회수되었고 무응답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33부를 제외하여 총 530부를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1의 분석을 위해서는 t 검정, ANOVA, χ^2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2, 3의 분석을 위해서는 회귀분석과 성별과 경제수준의 효과를 통제한 부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의복 구매빈도 및 지출액과 식습관 항목에

대해서는 명목변수를 연속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성별 및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물질주의 가치관 및 의생활 행동, 식생활 행동의 실태

1)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전체적으로 여학생보다 높았으며($t=4.20, p<.001$), 하위요인중 신체 용모와 운동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여학생보다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물질주의 가치관은 예상과는 달리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1> 참조).

한편,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1> 참조) 운동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계층간 차이가 나타나 계층이 높을수록 자아개념 점수가 높았다. Duncan 사후 검정결과, 전체 자아존중감, 신체용모, 학업 및 행동표행에서 상이나 중 집단의 청소년이 하 집단보다 높은 자아개념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에서는 특히 상 집단 청소년이 중이나 하 집단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자아개념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물질주의 가치관의 경우에는 계층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의생활 행동

성별 및 경제수준에 따른 의복 구매장소, 구매회수, 한달 의복 지출액, 의복 착용행동 등의 실태 및 차이를 조사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복구매 장소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동대문과 백화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기타에는 남대문, 이대앞, 지역 쇼핑센터 등이 포함되었다.

의복 구매 회수는 남학생은 2-6달에 1벌(47.1%)이 가장 많았던 반면, 여학생은 1-2달에 한 벌

〈표 1〉 성별 및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 평균의 t 및 F 검증

N=480

	성 별		t	경제수준			F
	남 (N=227)	여 (N=272)		상 (N=95)	중 (N=312)	하 (N=73)	
자아존중감							
전체자아존중감	3.13	2.96	4.20***	3.16 ^a	3.05 ^a	2.83 ^b	11.29***
신체용모	2.91	2.45	6.47***	2.79 ^a	2.70 ^a	2.36 ^b	5.81**
사회수용	3.47	3.52	-.88	3.67 ^a	3.47 ^b	3.36 ^b	5.96**
운 동	3.12	2.64	5.83***	3.01	2.85	2.74	1.80
학 업	2.89	2.86	.59	3.05 ^a	2.90 ^a	2.55 ^b	13.28***
행동품행	3.21	3.22	-.28	3.24 ^a	3.25 ^a	3.05 ^b	3.42*
가치관							
물질주의 가치관	3.04	3.14	-1.90	3.09	3.05	3.23	2.97

* p<.05, **p<.01, *** p<.001

주) a, b 중 같은 문자는 평균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

〈표 2〉 성별 및 경제수준에 따른 의생활 행동 실태

N=524

	성 별		경제수준		
	남	여	상	중	하
의복구매 장소					
유명 백화점	79(32.8)	91(32.2)	43(43.0)	106(32.3)	18(23.4)
동대문	86(35.7)	80(28.3)	25(25.0)	108(32.9)	27(35.1)
기타	76(31.5)	112(39.6)	32(32.0)	114(34.8)	32(41.6)
전체	241(100)	283(100)	100(100)	328(100)	77(100)
χ^2	4.62(df=2)		8.23(df=4)		
의복구매 빈도					
1달에 1벌 이상	36(14.9)	54(19.1)	34(34.0)	45(13.8)	5(6.4)
1-2달에 1벌	66(27.3)	103(36.5)	33(33.0)	114(34.9)	20(25.6)
2-6달에 1벌	114(47.1)	100(35.5)	25(25.0)	142(43.4)	37(47.4)
1년에 1벌 미만	26(10.7)	25(8.9)	8(8.0)	26(8.0)	16(20.5)
전체	242(100)	282(100)	100(100)	327(100)	78(100)
χ^2	9.64*(df=3)		44.33***(df=6)		
한달 의복지출액					
1만원 미만	81(34.3)	63(22.6)	16(16.2)	93(29.1)	32(41.6)
3만원 미만	72(30.5)	88(31.5)	26(26.3)	101(31.6)	24(31.2)
5만원 미만	31(13.1)	40(14.3)	17(17.2)	42(13.1)	9(11.7)
10만원 미만	25(10.6)	51(18.3)	20(20.2)	48(15.0)	6(7.8)
10만원 이상	27(11.4)	37(13.3)	20(20.2)	36(11.3)	6(7.8)
전체	236(100)	279(100)	99(100)	320(100)	77(100)
χ^2	11.94*(df=4)		22.78**(df=8)		

* p<.05 ** p<.01 *** p<.001

(36.5%)이 가장 많아서 여학생이 더 자주 옷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달 의복지출액은

남학생의 경우는 1만원 미만(34.3%)이 가장 많았던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3만원 미만(31.5%)이 가장

〈표 3〉 성별 및 경제수준에 따른 의복 착용행동 평균의 t 및 F 검증

N=530

	성 별		t	경제수준			F
	남	여		상	중	하	
의복 착용행동							
심미성	2.90	3.20	-5.59***	3.28 ^a	3.00 ^b	2.94 ^b	9.60***
정숙성	2.88	3.11	-4.01***	3.01	3.03	2.89	1.72
심리적 의존성	2.92	3.23	-6.88***	3.16 ^a	3.08 ^{ab}	2.96 ^b	3.32*
과시성	2.99	3.17	-3.00**	3.25 ^a	3.04 ^b	3.01 ^b	4.20*
동조성	2.58	2.64	-1.24	2.62	2.62	2.49	1.64
의복관심도	2.80	3.16	-7.05***	3.20 ^a	2.95 ^b	2.86 ^b	8.86***

* p<.05 ** p<.01 *** p<.001 주) a b 중 같은 문자는 평균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

많아서 여학생이 옷을 자주 구매하는 것과 동시에 지출액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른 의생활 행동의 차이를 보면 의복 구매 장소는 계층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의복 구매빈도의 경우 상 집단은 1달에 1벌 이상(34%)이 가장 많았던 반면, 하의 집단은 47.4%가 2-6달에 1벌을 구입하고 1년에 1벌 미만도 20%나 되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하 집단의 41.6%가 한 달에 1만원 미만을 의복비로 지출하는데 반해 상 집단은 40% 이상이 5만원 이상을 지출하였다(〈표 2〉 참조).

한편, 의복 착용행동의 점수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표 3〉참조), 동조성을 제외한 심미성, 정숙성, 심리적 안정성, 과시성, 의복 관심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여학생이 보다 옷의 미적이고 단정한 면을 고려하고 옷에 더 의존적이며 옷을 통해 과시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복 착용행동은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정숙성과 동조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 집단과 중, 하 집단간에 차이나 경제수준 상 집단의 청소년이 중이나 하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심미성, 과시성 및 의복 관심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심리적 의존성에서는 상 집단만이 하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은 의존성을 나타냈다(〈표 3〉 참조).

3) 식생활 행동

성별 및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들의 식

사에 대한 가치관, 식사비용, 식사, 외식 및 패스트푸드점 이용 빈도 등을 조사하였다. 우선 청소년들의 식사에 대한 가치관으로는 식사하는 이유, 식사량, 음식선택시 가장 중요한 사항 등을 조사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 학생들의 식사를 하는 이유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에 대해 남학생(74.5%)이 여학생(64.3%)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반면, 여학생(22.4%)은 남학생(13.8%)보다 '즐거기 위해서'에도 상당수가 응답하여 식사 이유에서 남녀 학생간에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식사량은 '적당량'을 한다는 남녀 모두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남학생은 '배부른 정도'에, 여학생은 '주는 대로'가 그 다음 순위를 나타내었다. 음식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남녀 모두 '맛'을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 '영양'에 대한 관심은 아주 낮았다. 한편 식사에 대한 가치관에서 계층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식사하는 이유로는 배고픔 해결과 적당량의 식사 및 맛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식습관을 보면(〈표 5〉 참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일회 식사비용으로 2-3천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그 다음으로는 남학생이 1-2천원인 경우가 많은데 비해 여학생은 3-4천원이 많아 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일회 간식비용으로는 1-2천 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또한 경제수준에 따른 차

〈표 4〉 성별 및 경제수준에 따른 식사에 대한 가치관

N=522

	성 별		경제수준		
	남	여	상	중	하
식사하는 이유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17(7.1)	18(6.4)	3(3.1)	27(8.3)	4(5.1)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178(74.5)	169(60.1)	63(64.3)	217(66.8)	56(71.8)
즐거기 위해서	33(13.8)	63(22.4)	22(22.4)	59(18.2)	9(11.5)
습관적으로	11(4.6)	31(11.0)	10(10.2)	22(6.8)	9(11.5)
전체	239(100)	281(100)	98(100)	325(100)	78(100)
χ^2	15.87***(df=3)		9.10(df=6)		
식사량					
배부른 정도	56(23.0)	44(15.7)	17(17.2)	68(20.7)	11(14.1)
적당량	142(58.4)	159(56.6)	59(59.6)	189(57.6)	43(55.1)
소량	13(5.3)	26(9.3)	7(7.1)	23(7.0)	8(10.3)
주는 대로	28(11.5)	48(17.1)	15(15.2)	45(13.7)	13(16.7)
기타	4(1.6)	4(1.4)	1(1.0)	3(0.9)	3(3.8)
전체	243(100)	281(100)	99(100)	328(100)	78(100)
χ^2	9.29***(df=4)		7.20(df=8)		
음식선택시 가장 중요한 사항					
양	10(4.1)	9(3.2)	4(4.0)	11(3.4)	3(3.8)
맛	197(81.7)	241(85.8)	87(87.9)	269(82.5)	67(85.9)
영양	14(5.8)	9(3.2)	0(0.0)	20(6.1)	1(1.3)
기타	20(8.3)	22(7.8)	8(8.1)	26(8.0)	7(9.0)
전체	241(100)	281(100)	99(100)	326(100)	78(100)
χ^2	2.61(df=3)		9.20(df=6)		

*** p<.001

이를 보면, 일회 식사비용으로 대부분이 2-3천원을 사용하였으나 경제수준이 하인 집단 학생의 경우 약 80% 가까운 학생들이 3천원 미만을 선택했지만 상의 경우 49%만이 3천원 미만을 사용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보였다. 간식비용의 경우도 경제수준이 하의 집단의 경우 약 90%의 학생들이 1-2천원 미만을 선택한데 비해 상의 집단은 약 60% 학생만이 1-2천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식사비용과 간식비용이 더 많음을 나타냈다.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약 40%이상 청소년들이 하루 한번이나 일주일에 3-4회 정도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청소년들의 외식빈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19%나 되어 여학생이 보다 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빈도의 경우,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한 달에 1-3회 정도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주 1-2회 가는 경우가 28.8%나 되어 남학생의 14.3%에 비해 훨씬 자주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외식빈도의 경우 상이나 중 집단의 청소년들은 23-24%가 '1일 1회 이상' 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하 집단 학생들은 9%만이 응답하였다. 또한 패스트푸드점 이용 빈도는 상 집단에서는 주 1-2회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46.9%인데 비해, 하 집단 학생들은 30.2%만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 집단이 외식이나 패스트푸드점을 더 자주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식습관에 대한 질문 중 아침 식사를 하는 빈도는 매일 먹는 경우가 남학생의 45.4%, 여

〈표 5〉 성별 및 경제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식습관

N=520

	성 별		경제수준		
	남	여	상	중	하
아침식사 빈도					
매일	110(45.4)	121(42.8)	38(38.0)	151(45.9)	30(39.0)
주 4-5회	65(26.9)	48(17.0)	22(22.0)	66(20.1)	23(29.9)
주 2-3회	26(10.7)	32(11.3)	10(10.0)	38(11.6)	7(9.1)
거의 안 먹음	41(16.9)	82(29.0)	30(30.0)	74(22.5)	17(22.1)
전체	242(100)	283(100)	100(100)	329(100)	77(100)
χ^2	14.25** (df=3)		6.60(df=6)		
외식빈도					
1회 이상/일	50(20.7)	63(22.3)	23(23.2)	79(24.0)	7(9.0)
3-4회/주	52(21.5)	57(20.1)	23(23.2)	63(19.1)	18(23.1)
1-2회/주	51(21.1)	85(30.0)	28(28.3)	80(24.3)	24(30.8)
1-3회/월	42(17.4)	55(19.4)	16(16.2)	65(19.8)	13(16.7)
거의 하지 않음	47(19.4)	23(8.1)	9(9.1)	42(12.8)	16(20.5)
전체	242(100)	283(100)	99(100)	29(100)	78(100)
χ^2	17.10** (df=5)		14.10(df=8)		
패스트푸드점 이용 빈도					
1회이상/일	9(3.8)	16(5.7)	7(7.1)	15(4.6)	0(.0)
3-4회/주	20(8.4)	30(10.7)	11(11.2)	28(8.6)	9(11.8)
1-2회/주	34(14.3)	81(28.8)	28(28.6)	68(20.9)	14(18.4)
1-3회/월	118(49.6)	121(43.1)	40(40.8)	160(49.1)	32(42.1)
거의 가지 않음	57(23.9)	33(11.7)	12(12.2)	55(16.9)	21(27.6)
전체	238(100)	281(100)	98(100)	326(100)	76(100)
χ^2	26.22*** (df=4)		16.13* (df=8)		
일회식사비용					
천원 미만	12(5.0)	1(0.4)	2(2.0)	10(3.1)	1(1.3)
1-2 천 원	66(27.5)	48(17.0)	17(17.0)	69(21.2)	25(32.1)
2-3 천 원	92(38.3)	97(34.3)	30(30.0)	117(35.9)	34(43.6)
3-4 천 원	34(14.2)	82(29.0)	24(24.0)	79(24.2)	9(11.5)
4-5 천 원	25(10.4)	41(14.5)	18(18.0)	39(12.0)	6(7.7)
5천원 이상	11(4.6)	14(4.9)	9(9.0)	12(3.7)	3(3.8)
전체	240(100)	283(100)	100(100)	326(100)	78(100)
χ^2	33.07*** (df=5)		21.40* (df=10)		
일회간식비용					
천 원 미만	64(26.8)	80(28.3)	20(20.2)	94(28.7)	25(32.1)
1-2 천 원	110(46.0)	132(46.6)	41(41.4)	154(47.1)	41(52.6)
2-3 천 원	48(20.1)	49(17.3)	26(26.3)	56(17.1)	9(11.5)
3-4 천 원	10(4.2)	14(4.9)	6(6.1)	14(4.3)	3(3.8)
4천 원 이상	7(2.9)	8(2.8)	6(6.1)	9(2.8)	0(.0)
전체	239(100)	283(100)	99(100)	327(100)	504(100)
χ^2	.82(df=4)		15.71* (df=8)		

* p<.05 ** p<.01 *** p<.001

학생의 42.8%으로 나타난 한편, 남학생의 16.9%, 여학생의 29.0%는 거의 아침을 먹지 않는다고 응답해서 여학생들의 아침 결식율이 남학생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한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거의 먹지 않는다고 답한 학생들이 약 22%에서 30%에 이르고 있어, 계층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는 회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2.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 간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성별 및 경제수준을 통제한 상태에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동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표 6> 참조). 즉,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신체 용모나 사회적 수용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동불행이나 학업점수가 낮을 때 높았다. 또한 이러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

력을 파악하기 위해 경제적 수준을 통제하고 전체 자아존중감 점수를 제외한 5개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체 용모($\beta = -.25, p < .001$)와 행동불행요인($\beta = -.13, p < .01$)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고, 이 두 변인이 물질주의 가치관의 총 변량을 10% 설명하였다($R^2 = .10, F = 25.18, p < .001$).

3.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식생활 행동간의 관계

1)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 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 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복구매 빈도, 한달 의복비 지출액 및 의복착용행동(6개 하위요인)에 대해 성과 경제수준을 통제한 부분 상관관계(second-order partial correlation)를 산출하였다(<표 7> 참조). 그 결과, 의복구매빈도는 사회수용($r = .20$,

<표 6>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N=517

	자아존중감					
	신체용모	사회수용	운동	행동불행	학업	전체자아존중감
물질주의가치관	-.25***	-.10*	.03	-.20***	-.11*	-.20***

* p<.05 ** p<.01 *** p<.001

<표 7>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 행동간의 상관관계

N=517

	자아존중감						물질주의 가치관
	신체용모	사회수용	운동	행동불행	학업	전체자아존중감	
의복구매빈도	.05	.20***	.10*	-.08	.10*	.13**	.18***
의복지출액	-.07	.13**	.06	-.12*	-.05	-.01	.17***
의복착용행동							
심미성	-.04	.11*	.15**	.06	.02	.09	.25***
정숙성	-.14**	-.20***	-.17***	.19***	-.01	-.12*	-.04
심리적 의존	-.02	.06	.10*	.07	.03	.07	.20***
과시성	-.05	.14**	.20***	-.04	.07	.11*	.40***
동조성	-.19***	-.13**	.03	-.13**	-.16***	-.18***	.30***
의복관심도	-.02	.22***	.22***	-.04	.04	.14**	.27***

* p<.05 ** p<.01 *** p<.001

p<.001), 운동(r=.10, p<.05), 학업(r=.10, p<.05)요인을 비롯해 전체 자아존중감(r=.13,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달 의복 지출액은 사회수용(r=.13, p<.01)과는 정적인 관계를, 행동품행(r=-.12, p<.05)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대부분의 자아존중감 하위 요인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구매 빈도는 높았다. 그러나 의복비 지출액의 경우에는 사회수용 점수가 높을수록 지출액이 많은 반면, 행동품행에 대한 점수가 낮을수록 지출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신체용모는 의복 구매 빈도나 의복비 지출액과는 무관하였다.

또한 의복착용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숙성은 대부분의 자아존중감 점수와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 신체용모, 사회적 수용도, 운동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경우 의복행동에서 정숙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행동품행과 정숙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 자신의 행동이나 품행을 높게 평가는 경우 정숙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조성은 운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아존중감 점수와 부적인 상관을 보여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의복 착용행동에서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복구매 빈도, 의복비 지출액 및 의복착용행동(6개 하위요인) 간에는 거의 모든 상관관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의복구매 횟수는 잦고 의복구매지출액도 높으며, 정숙성을 제외한 모든 의복착용행동 요인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물질주의 가치관과 과시성의 관계가 가장 높은 상관(r=.40, p<.001)을 보인 것은 흥미롭다.

2)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식생활 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식생활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식생활 행동 중 외식빈도, 패스트푸드점 이용빈도, 아침식사빈도, 일회 식사비용, 일회 간식비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표 8> 참조). 그 결과 외식빈도와 패스트푸드점 이용빈도는 자아존중감 하위요인들 중 사회수용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사회적인 수용을 높게 지각하는 청소년은 외식이나 패스트푸드점 이용 빈도가 높았다. 반면에, 외식 빈도는 행동품행과는 부적인 상관 관계를 보였다.

또한 아침식사의 빈도는 학업이나 행동품행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여 학업이나 품행에 만족할수록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회 식사비용은 사회수용이나 학업 요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일회 간식비용은 행동품행과 부적인 상관을 보여 흥미롭다.

한편, 청소년의 가치관과 식생활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물질주의 가치관은 외식 및 패스트푸드 이용빈도와 일회 식사비용 및 간식비용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물질주의 가치관은 높을수록 외식빈도와 패스트푸드 이용빈도가 높고 일회 식사 및 간식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식생활 행동간의 관계

N=522

식생활 행동	자아존중감						가치관
	신체용모	사회수용	운동	행동품행	학업	전체자아존중감	물질주의 가치관
외식빈도	.03	.14***	.08	-.15***	.02	.05	.14**
패스트푸드점 이용빈도	.05	.11*	.12**	-.08	.00	.07	.15**
아침식사빈도	.00	.00	.04	.13**	.14**	.09	-.07
일회 식사비용	-.01	.11*	.01	-.07	.11*	.06	.15**
일회 간식비용	.03	.08	.00	-.10*	-.01	.01	.11*

* p<.05 ** p<.01 *** p<.001

V. 요약 및 논의

1. 성별 및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 물질주의 가치관 및 의생활 행동, 식생활 행동의 실태

1)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

전반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신체용모와 학업에 대한 자아존중감 점수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신체용모 및 학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또래와의 비교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상실하여 보다 낮게 자신을 평가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시기의 발달적 특징이기도 하지만, 학력과 외모를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성별 및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특히 신체적인 용모나 운동 능력에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대부분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며, 자신의 외모나 신체 등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구정화(1994)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운동을 제외한 모든 자아개념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 청소년이 높은 집단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낮은 자아존중감 점수를 나타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서주형, 1995; 손원숙, 1994)을 지지한다.

한편, 물질주의 가치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성별에 따라 물질주의 가치관이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들(서정희, 조영희, 1997; 송은경, 1997)과 일치한다. 그러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상과 중 집단에 비해 하 집단 청소년의 물질주의 수준은 특히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이 많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낮다는 Rindfleisch 등(1997)의 결과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들(백경미, 1995; 송인숙, 1993)을 지지한다. 그러나 계층 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경우(김미선, 1996; 김민희, 1998)와는 다른데 이러한 불일치한 결과는 대부분의

연구가 주부를 대상으로 한 때문이거나 경제수준의 분류기준이 다른데 기인 할 수 있다.

2) 의생활 행동 실태

의복 구매장소, 구매빈도, 한달 의복비 지출액, 의복 착용행동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구매장소를 제외한 모든 행동에서 성 및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남학생은 2-6달에 한 벌을 구입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반면, 여학생은 1-2달에 한 벌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해 여학생이 더 자주 옷을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의복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구매 활동은 서주형(1995), 이수정(1994)의 결과와 일치하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의식이 높다는 결과(고애란, 김양진, 1996; 양은주, 1993)에 비추어 해석 될 수 있다. 즉, 여학생의 경우 타인에게 비취질 자신의 모습에 대한 생각이 자의식이 높다는 사실은 더욱 외모에 대한 관심과 신경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의복 구매 및 관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 상 집단의 경우는 34%의 청소년이 한 달에 1 벌 이상을 구입하는데 반해, 하 집단은 64%가 구입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한달 의복비 지출액도 성 및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여학생이, 그리고 상 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복 착용행동을 살펴보면, 동조성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없었으나 이를 제외한 심미성, 정숙성, 심리적 안정성, 과시성, 의복 관심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보다 의복의 미적인 면과 단정한 면을 중요시하며 의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와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숙성과 동조성에서는 계층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외 요인에서는 계층별 차이가 나타나 상 집단의 경우 특히 높은 심미성, 심리적 의존성, 과시성 및 의복 관심도를 나타내었다. 이로 보아 특히 동조성은 성이나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보다는 심리적인 특성과 관련된 행동으로 가정된다.

3) 식생활 행동 실태

청소년들의 식사에 대한 가치관, 아침식사 빈도, 식사 및 간식비용, 외식 및 패스트푸드 점 이용빈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식사에 대한 가치관, 아침식사 빈도 및 외식 또는 패스트푸드 이용 빈도에서 성별 간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식사비용 및 간식 비용에서 성 및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사에 대한 가치관 중 식사를 하는 이유로 남녀 청소년 모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즐거기 위해서'에도 상당수 응답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사량에서도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배부른 정도'를 비교적 중요시하고 있다. 식사가치관은 경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남녀 모두 일 회의 식사비용으로는 2-3천원, 일 회의 간식비용으로는 1-2천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비교적 1천원 정도 더 적게 지출하고 있었다. 예상할 수 있듯이 경제수준에 따라 식사 및 간식비용에서 차이가 나타나, 상 집단에 비해 하 집단의 경우는 간식비용이 천원 미만, 식비가 1-2천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청소년들의 식습관 조사 중 아침식사 빈도를 살펴보면 남녀 청소년 모두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학생은 약 40% 웃돌아 절반에 못 미치는 한편, 여학생의 약 30%가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약 17%)에 비해 여학생이 더 불규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침식사는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 나타난 불규칙한 식습관과 높은 결식율은 청소년들의 건강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아침식사 빈도에서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밖에도 외식 빈도와 패스트푸드점에 이용 빈도에서 성차가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보다 자주 외식을 하고 패스트푸드점을 더 자주 이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패스트푸드

점 이용 빈도가 더 높았다는 결과(서영선, 199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패스트푸드점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모든 요인들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특히 신체 용모나 행동품행은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나 신체 용모에 대한 자아존중감 점수가 낮을수록 그리고 행동품행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물질주의 가치관을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의 상실을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보충하려 한다는 주장(Richins & Dawson, 1992)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나 부모의 양육행동은 직접적으로 또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물질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유연(2000)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정에서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과소비성향이나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예방해야 할 것임을 시사 받을 수 있다.

3.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식생활 행동간의 관계

1)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 행동간의 관계

첫째, 의복구매빈도는 자아존중감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 사회수용, 운동, 학업에 관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 구매빈도가 높았으며, 한 달 의복비 지출액은 사회수용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높았다. 이는 사회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적극적 구매태도를 취한다는 서주형(1995)의 결과와 같다. 그러나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적극적 구매태도를 취한다는 서주형(1995)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신체 용모에 대한 자아개념은 의복구매 빈도나 의복비 지출액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신체나 외모에 대한 의식이 자아존중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므로 외모와 의복 구매 빈도 및 의복비 지출액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은 본 연구에서 입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의복구매 빈도나 의복비 지출액과 사회수용도 간의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의복관련 행동은 외모보다는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가정된다. 한편,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의복비 지출액이 높았다.

둘째, 의복 착용행동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미성, 과시성 및 의복 관심도 요인은 대체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정숙성과 동조성의 경우는 대체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심미성, 과시성과 관련 된다는 선행 연구들(김순구, 윤학자, 1986; 심정은, 1997)과 일치하는 결과이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동조성, 정숙성은 낮다(김순구, 박정순, 1990; 김연주, 1992)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사회규범에 단정하게 따르는 정숙성이나 또래 또는 타인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동조성을 보이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고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예상할 수 있듯이 행동품행 점수가 높은 청소년은 의복 착용행동에서 정숙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청소년의 물질주의 가치관은 본 연구에서 다른 거의 모든 의생활 행동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즉,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의복구매 횟수는 잦고, 의복구매지출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심미성, 심리적 의존성, 과시성, 동조성, 의복 관심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의복의 상징적 소비성향이 높았다(이옥희, 1997)는 연구 결과와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판단보다는 타인의 인정을 지향할 수 있는 정보원을 더 중요시 여기고 의복 구매빈도가 많으며 구매 가격대도 높았다(김민희, 1998)는 연구 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준거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의복 동조성이 높다는 결

과(서정희, 조영희, 1997)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특히 과시성과 동조성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매우 강한 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의복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는 경우 의복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의복 구매 욕이 강하고 의복을 포함한 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또한 또래들의 취향이나 유행에 맞추려는 동조성이 높은 경우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나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높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의생활 행동 전반에 걸쳐 물질주의 가치관과의 높은 관련성이 나타난 것은 현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의복이나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의복 구매를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욕구가 다시 높은 물질주의 성향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2)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식생활 행동간의 관계

첫째, 외식을 많이 할수록 사회수용 점수가 높고 행동품행 점수는 낮게 나타났으며, 패스트푸드점을 많이 이용할수록 사회수용에 관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높은 외식빈도와 패스트푸드점 이용 빈도가 사회수용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것은 또래들과 자주 어울리고 사교적인 청소년들이 만남의 수단과 장소로 외식이나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한다고 해석 될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패스트푸드점 이용 빈도가 높았다(서영선, 1992)는 연구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한편,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할수록 학업과 행동품행에 관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의 빈도에 관한 이 같은 결과는 올바른 식습관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게 한다는 연구(Petrie, 1993; Macdonald, 1983)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바람직한 식습관이 정신적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성효, 1998)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밖에도 사회수용과 학업에 관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식사비용도 높게 나타난 한

편, 행동품행 요인이 낮을수록 간식비용은 높았다.

둘째, 물질주의 가치관과 식생활 행동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을수록 외식빈도 및 패스트푸드 이용빈도가 높고, 식사나 간식비용도 높았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의생활 행동에서 의복 구매 빈도와 지출액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특히 여학생과 경제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집단 청소년들의 과소비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또한 식생활 행동에서도 영양의 고려가 소홀하고 아침식사를 거르는 빈도나 외식이나 패스트 푸드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학생의 경우 두드러졌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물질주의 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한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은 의생활 및 식생활 행동에 영향을 미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과소비 성향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일상적 행동에 대한 심리적 근원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또한 간접적으로 가정에서의 양육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본 연구는 종합학문인 가정학의 학문적 틀 안에서 아동의 심리적인 특성과 의복 행동 및 식생활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드문 실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탐색적 연구 성격을 지니며, 상관관계에 기초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인과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경제수준의 분류에서 청소년이 지각을 근거로 하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한편, 중간 계층 집단에 편중되어 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및 가치관이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생활, 식생활 행동과의 상호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가정의 전반적인 분위기, 어머니 자신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자녀의 의생활 및 식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자녀의 과소비 행동이나 행동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애란, 김양진(1996). 청소년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의류학회지, 20(4), 667-681.
- 구정화(1994).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 95-113.
- 김미선(1996). 물질주의 성향과 충동구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희(1998). 물질주의 성향에 따른 의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구, 박정순(1990).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4), 305-313.
- 김순구, 윤학자(1986).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0(1), 1-8.
- 김연주(1992). 국민학교 아동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연(2000). 가정환경 변인 및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1998). 유행의견선도력과 의복구매행동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남(1993). 고교생의 자아상에 관한 연구. 대구 YMCA 청소년문제 연구소.
- 박혜선(1990). 의복동조에 관한 연구-의복동조의 유형, 관련변인 및 준거집단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경미(1994). 도시주부의 과소비성향과 영향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민숙(1986). 청소년층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선(1992). 청소년의 패스트푸드 식습관과 인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희, 조영희(1997). 청소년 소비자의 물질주의 성향과 준거집단이 의복동조성에 미치는 영향. 광고연구, 34, 114-135.
- 서주형(1995). 고교생의 자아개념과 의복구매행동에

-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원숙(1994). 주관적 연령지각과 자아개념 및 생활 만족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은경(1997). 청소년 소비자의 물질주의 및 과소비 성향과 관련요인.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인숙(1993). 소비자의 구매충동 성향 및 영향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정은(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조절행동과 의복 행동과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원경(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 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은주(1993). 자의식과 부정적 생활 경험이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1987).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경(1997). 아노미와 의복의 과시적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선(1993). 여대생의 식사 행동과 심리적 요인들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효(1998). 여고생의 우울감,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이 섭식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정(1994). 의생활양식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1990). 도시 청소년의 식생활 행동과 식품에 대한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희(1997). 물질주의와 준거집단 및 사회계층이 의복의 상징적 소비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경복, 임숙자, 조진숙(1995). 세대별 가치관과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 19(4).
- 임숙자(1988). 소비자의 의복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53.
- 전귀연(1998). 가족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대안가정학회지, 36(3), 87-101.
- 정재은, 이순원(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448-458.
- Belk, R. W. (1985).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 265-277.
- Belk, R. W. (1988). Possession and the extended self.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 139-168.
- Cash, T., Winstead, B., & Janda, L. (1986). The great American shape-up: Body image survey report. *Psychology Today*, 20(4), 30-37.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Macdonald, L. A. (1983). Factors offering the dietary quality of adolescent girl. *J. Am. Dietet. Ass.*, 82(3), 260.
- Petrie, T. A. (1993). Disordered eating in female collegiate gymnasts: Prevalence and personality/attitudinal correlate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5, 424-436.
- Richins, M. L., & Dawson, S. (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303-316.
- Rindfleisch, A., Burroughs J. E., & Denton, F. (1997). Family structure, materialism, and compulsiv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3, 312-326.
- Rudd, N. A., & Lennon, S. J. (1994). Aesthetics of the body and social identity. *International Textiles and Apparel Association*, 7, 163-175.